

2023 지역기반통합프로그램(연속)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
영덕 괴시민속마을 <할매할배 이야기>

괴시 할머니 생애사 기록집

지나간 자리는 다 꿈이어라

인터뷰, 글 | 허현정
사진 | 이상철, 김영철, 권주은





프롤로그

4

들어가는 말

서로의 바람벽이 되어 살아온 67년

8

권태갑(89세)

관세음보살을 닮은 미소

46

김위순(89세)

당찬 똑똑이 할매의 꿈

78

박차노미(89세)

에필로그

106

맺는 말



할머니 가라사대...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여름 장엄하고 무성했던 나무가 찬 바람 속에 말라간다.
달이 차면 기울듯, 시간을 아는 늙은 나무는 가지마다 촘촘히 맺었던 열매를 툭툭
떨군다.
찬란한 잎도 다 털어내고 가볍게, 홀가분하게, 또 다른 한 철을 준비한다.

새로운 삶의 단락이 시작된다. 이제 비축과 저장, 기다림의 시간이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양식으로 삶은 지속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어 간다. 자연의 법이고 원칙이다.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괴시마을의 오래된 한옥이지만
마을의 진정한 보물은 긴 역사를 만들고 지키고 보태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괴시마을엔 자연의 흐름과 법칙을 알고 순응하며, 삶으로 가르치는 인생의 스승
이 있다.
이분들을 모시고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고자 기획된 것이 생애사 기록집이다.

속 시원하게 꺼내놓고 대거리 한판 하시고 홀가분하게 행복하시라고 시작한 인터
뷰가 숨겨둔 아픔을 들춰내고 아픈 기억을 소환하는 역할을 하게 될까...
속깊이 두렵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가라사대...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웠다...'
라고 서문을 연다.

올해 만난 세 분의 할머니는 여러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달랐다.
1935년 을해생 89세 동갑. 괴시마을로 시집오거나 괴시마을로 이주해 삶의 뿌
리를 내린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 병고, 사건, 사고 등 시커멓게 아가리를 벌린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자식과 가족을 지켜낸 여전사,
기운 센 여장부 어르신들이란 점은 유사했다.

다른 건 각자가 처한 시간이었다.

구멍 송송 뚫린 인생의 정글 숲을 헤쳐온 시간이 흉터를 삶의 무늬로 바꿔놓은 분도 있고 더러는 아픔의 시간을 마음 빗장 속에 넣어두고 봉인한 분도 있다.

말을 시작하면 조근조근 조리 있고 언어가 질서정연하고 재치가 번뜩인다.

자타공인 총기가 넘친다. 하지만 슬픔의 연막이 종종 그의 빛나는 총기를 가린다.

아직 가슴 치는 애도의 시간이다.

깊은 상처가 아물고 자취도 단단해져 다시 맑게 웃으실 날이 머지않았길 바라볼 뿐이다.

2023년은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지역기반통합프로그램 어르신 문화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차가 된 해이다. 시행착오 좌충우돌 속에서도 많은 주민들과 호흡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대상과 세대의 폭이 넓어졌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나 적극적인 의견 소통도 원활히 이뤄지면서 주민 주도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여러 마을사업이 성과를 냈지만 가장 중추적인 과제는 역시 생애사 기록이었다.

하지만 대상을 모시는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이어졌고 인터뷰 와중에도 개인적인 난제를 수렴해야 했다.

그 결과 나온 이 작은 책자가 어르신들이 일평생 묻어둔 부끄러움을 자긍심으로 승화하고 자존감을 북돋우며 세상 속으로 한 발 걸어 나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히 해내었을까...

한 번 더 돌아보게 된다. 이 안에는 필자가 듣는 것조차 힘들어 더 묻지 못하고 주변만 맴돈 인터뷰의 오류가 가득하다.

그렇다면 괴시마을 할매할배이야기 생애사 기록 프로그램은 한계에 봉착했을까.

그렇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보이는 한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가보지 않은 또 다른 길의 출구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터널은 언젠가 끝난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그 다음 어떤 길이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길이 나올지 두려워 끝이 보이는 터널 안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하나의 시간과 공간이 끝나면, 전혀 다른 시공간이 열린다.

그것은 때로 잔혹하고 더러 무도하게 느껴지는 '자연의 섭리'가 준비한 과정이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시간이 아닐까.

그리하여 괴시마을 할매할배이야기 2년 차 생애사 기록집의 제목은

『지나간 자리는 다 꿈이어라』가 되었다.

우리가 온몸으로 통과해 온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면 모두 번다한 한 판 꿈이었다.

슬픈 꿈에서 깨어 눈 뜨면 어제보다 더 눈부신,

행복할 것들로 충만한 '오늘'이 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괴시마을의 살아있는 스승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2023. 10.

영덕문화관광재단 올림



서로의 바람벽이 되어 살아온 67년

권태갑 (1935년 을해생, 89세)



“싫은 소리해도 돌아서면 서로 밥 챙겨요.
그래 기대 의지하며 둘이 사니 그게 좋아요”





20년 전 문화재청에서 마을의 한옥을 수리할 때 되살려 놓은 할머니의 고택은 여름철 연꽃이 지천으로 피는 연못, 맑은 편에 자리해 있습니다.
현재 5대손인 주인어른이 살고 있으니 수백 년 된 가옥입니다. 솥을대문을 밀고 들어가면 텃밭으로 잘 가꿔진 마당이 나오고 마당을 가로질러 일자형 나지막한 한옥이 앉아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집안을 기웃대며 불러봐도 기척이 없더니 장지문이 찌뿌둥이 열리며 오늘의 주인공이 해사하게 웃으며 등장하십니다.

“문신을 안해 눈썹 그리기가 힘들어...”

화장을 하다 말고 불청객을 맞는 할머니. 뽀얗게 분칠한 얼굴이 달덩이 같습니다.

귀한 손이 오셨다며 90도 굽은 허리로 담근 감주를 혼자서는 열고 닫기도 힘든 대형 김치냉장고에 살얼음 끼도록 보관했다가 내어주십니다.

지난 봄 따온 쑥으로 절편도 맞춰놓으셨습니다. 어제 시장 떡집에 맡기고 새벽같이 찾아오셨답니다. 유모차를 끌고 만세시장까지 오셨을 할머니의 끄끙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도 집에 온 손님을 맨입으로 보내지 않는 반가 어르신들이 기본기로 내놓는 상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소반을 받았습니다.

맑게 담근 감주는 쌀알 조차 투명하고 단맛의 깊이가 한 두 해 손맛이 아닙니다. 마당에서 딴 무화과와 온기 남아있는 쑥 절편까지 더없이 단정하고 정겨운 상입니다.

격식과 온정 담은 간식을 잠시 맛보고, 할머니의 사연을 천천히 여쭙었습니다.





입암서원 전경

“
내 친정 죽장면 입암마을은
지금은 포항시에 속해 있지만
이전엔 영일군이었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권.태.갑. 조모님 회갑연에 났다고 갑(甲)자 넣었대요. 태자는 항렬이고. 올해생 89살이고 우리 바깥양반 보다 1살 많아요. 내가 연상이지.

남자 이름 같아요.

바깥양반 이름은 남.영.화(88) 거든요. 동사무소에서 남녀 이름을 바꿔 써놓기도 해요. 헛갈리나봐.

시집오시기 전에 살던 친정 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내 친정 죽장면 입암마을은 지금은 포항시에 속해 있지만 이전엔 영일군이었어요.

요새는 길이 좋아 포항에서 40분 거리지만 옛날에는 포장도 안된 좁은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고디(고동) 창자 같다고 했어. 신행¹ 갈 때도 하루에 못 가고 포항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시택으로 들어갔지.

입암마을은 우리 입향조 동봉 권극립(權克立)선생이 임진왜란 때 피난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자리잡은 데서 시작됐어요. 입향하신지 440년 됐고 입암서원에 여헌 장현광(張顯光) 선생과 입향조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어요.

¹ 신부가 시택으로 살러 들어가는 것

현재 죽장면 입암마을 거리 풍경





입암마을 옛 고향집 전경

첩첩 산중에 있지만 들어가 보면 참 넓은 마을이에요. 마을 안에 우체국, 농협, 지서, 초등학교 모여있고 장터도 집 앞에 있어요. 지금은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 다 객지에 나가고 타성들이 집을 사 가지고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클 때는 권가만 100여 호 살았어요. 마을이 다 권가였고 타성은 머슴들이었어요. 머슴은 1년 농사 지어주고 새경(월급)을 한목에 다 받아요. 월급이라 해봤자 나락 몇 섬이고, 설에 한복 한 벌, 여름에 삼베 한복 한 벌 해줬어요.

우리 친정은 택호 안부르고 마을에선 큰 집, 큰 집하면 다 통했어요. 200년 넘은 집이에요.

방 네 칸에 안채 두 칸 마루, 사랑도 두 칸 마루를 둔 기와집이에요. 옛날에는 마을에 우리집 같이 기와 얹은 집이 열 채도 안됐어요.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이 있었는데 농사는 큰 머슴, 작은 머슴이 지었어요. 양반은 일을 안하니까 조상님들한테 재산을 물려받아도 그 재산을 줄여가며 살았지 더 일으켜가며 산 건 아니에요.

옛날엔 토지가 많아도 머슴 둘이 농사 짓고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돈은 늘 귀하고 그래요. 마을에 큰일이 있으면 토지라도 좀 줄여 가지고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 큰 부자는 아니고 우리 집 앞에 앞 산이 친정산이었어요.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죽장 국민학교(초등학교) 다녔어요. 마을 안에 있어서 걸어 다녔죠. 큰비가 오면 다른 마을에서 오는 아이들은 결석하고 그랬는데 나는 건너야 하는 하천도 없어서 학교 다닐 때 우등상은 못타도 개근상은 탔지 싶어요.

우리 입암마을은 교육열이 높아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출신이 흔했어요. 장군이 셋 나오고, 학자, 교장도 많이 나왔고 교사는 술하게 배출했어요. 우리 집안의 종손도 서울대 화공학과 나와서 미국서 사업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우리 여자들은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끝이에요. 그래도 나는 한학하는 조부님이 계시니까 아침마다 한문도 좀 배웠어요. 획수 많은 한자는 잘 몰라도 봉투나 신문에 나오는 웬만한 건 읽을 수 있어요.

집안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바느질은 많이 했어요. 친정에서 부친하고 조부님이 평생 한복만 입고 계셨거든요. 지금도 남자 양복은 못 해도 치마, 블라우스, 잠옷 이런 건 다 만들어요. (지금 입고 계신 치마도 직접 만든 것이라며 보여주십니다.)



초등 동기들과 처녀시절 할머니(우측 끝)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조부님과 아버지는 평생 호미나 낫을 모르고 큰 집에 양자 가서 책이나 보시고 아무 일을 안하셨어요. 우리 부친은 집안에서도 늘 두루마기 입고 계셨는데 여름에는 두루마기 입고 말 타고 안동으로 출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잘난 사람도 있나” 그런 소리도 들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아침에 세수하다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50 넘어 환갑 전에 돌아가셨어요. 6.25 사변 이후부터 농사 짓던 머슴들이 점점 잘 살게 되고 양반은 일 안 하고 먹고 노니까 토지도 줄어들고 했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매가 살림을 도맡아하신 거라.

우리 친정 어매가 좀 많이 똑똑하신 편이에요. 눈썰미도 좋아서 대구도 한번 갔다 오시면 혼자 걸어다니셨어요. 그때는 길쌈도 많이 했어요. 목화 따서 무명도 짜고 뽕 줘서 누에 길러 명주도 하고 여름에는 삼베도 하고 어매가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니까 우리 자매가 살림을 많이 살았죠.

그때는 쌀도 집에서 방아로 찧어먹었어요. 그 큰 집에 머슴도 둘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하는데 길쌈을 우에 했는지...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노 싶어요.

우리 어매가 그래 길쌈을 해서 베를 팔아 가지고 일제 재봉틀을 샀어요. 옛날에는 틀 있는 집이 몇 집 없었어요. 우리 친정 어매는 바느질도 참 잘했고 두루마기, 도포같은 것도 직접 마름질 해서 다 만들었어요. 나는 도포는 못해보고 두루마기까지는 마름질 해주면 만들어봤어요.

우리 어매가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는 시골에서 어른들 수의를 지으셨어요. 타성들도 수의를 많이 주문했어요. 눈 밝으시고 재봉틀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돈 벌어서 살림을 했어요.

우리 친정 어매가 체구는 자그마했지만 종부로 와가지고 길쌈 바느질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참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우리 조모님이 요새로 말하면 위암 일 것 같은데 수년 동안 아파 누워계셨어요. 병 수발 하느라고 맨날 개 잡아먹이고 닭 잡아서 먹이고... 나중에 들으니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닭 잡고 이러는 게 해롭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손 아래 남동생 둘 낳았는데 다 실패보고. 내 여동생하고 나, 딸 자매만 컸어요.



여동생은 어때요?

여동생은 2살 차이 나는데 성격이 나랑은 달라요. 키도 그렇고 덩치도 더 커요. 목소리도 걸걸하고 불임성도 좋고 성격이 유들유들해요. 명랑하고..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산나물도 잘해오고 찜도 잘 삶아요. 나는 산나물 이름도 몰라요.

내가 생각해보면 우리 친정엄마가 아들이 없었는데 우리 딸 둘도 아들 못 낳으면 친정엄마 닮았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내가 형제 낳고 우리 동생도 아들 형제 낳았으니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 싶어요.

동네 친구들과 여동생(좌측 끝)



할머니와 남동생 권태현씨

그럼 할머니 덕도 딸 둘 뿐이었으니 양자들이셨어요?

그렇지. 웃대는 형제분 되고 삼형제, 사형제 그렇게 됐는데 아랫대 내려와서는 손이 귀했어요.

조부님도 양자 하시고 아버지도 양자 하셨어요(양자 들었다)

원래 남동생 생가가 9남매야. 딸 둘, 아들 7형제인데, 처음엔 딴 집에 양자를 보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우리 재종양반이 후덕하세요. 한번은 우리집에 와서 그랬대요.

“아지매요 아지매요 내 아들들이 많은데 남을 줘서 큰집 만들 수 있나, 딴사람이 양자오면 남의 큰집 안되나. 마음에 드는 아들 하나 데리고 가소” 그래 가꼬 지금 남동생이 양자로 왔는데 11살이었어요.

자기 생가에 가면 식구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아버지 엄마까지 식구가 10명이 넘는데 우리집은 그때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자매(여동생과 나)는 출가했고. 그 큰 집에 우리 모친 혼자 계시니 양자로 들어오긴 했는데 무슨 법을 알아서 정을 붙이고 살겠노. 며칠을 못 있고 생가에 가뿌고 가뿌고 우리가 친정에 한 번씩 가면 우리 바깥양반 하고 둘이서 그 집

(남동생 생가) 가서 몇 번 데려오고 그랬어요. 내 자식이라도 11살에 무슨 철이 들어가 양자로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커가지고 대구 가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나니까 점점 실감이 난 거지. ‘여기가 내 집이구나. 큰집은 내가 지켜야지’ 했대요.

우리 친정어매는 남동생이 낳은 아들, 손주도 안아보고 가셨어요. 원 푸신 거지.

79살에 돌아가셨는데 남동생이 죽장면이 아니고 저 먼 신광면에 근무할 때예요. 고향 집에 빈소 차려놓고 초하루 보름날 마다 왔다 갔다하며 모셨대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죽장면 농협으로 발령 내달라고 해서 집 근처에서 근무하며 3년 상을 치르고 승진해서 다시 기계면 농협으로 갔어요. 참 고맙고 대단하지요.

우리 남동생은 농협에 42년 근무했고 죽장면, 기계면 농협 조합장을 세 번 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들어와서 농사짓고 살아요. 평생 농사지는 사람이 아닌데 잘해요. 이젠 완전히 내 집이 된거라.

몇백 년 된 집이니 살기가 불편하잖아요. 고향 지키는 남동생이 5년 전에 옛날 집 다 허물고 새로 한옥을 지었어요. 나무도 쥔 좋은 걸로 썼대요. 밖은 한옥이래도 안은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살기 편해요. 옛날 집 허물 때 나온 기와는 안버리고 담장으로 만들어 놔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6.25사변 때는 어땠나요?

11살 때 해방되고 16살 때 6.25사변이 났는데 그때는 진학을 안 하고 머리 땀은 치녀였잖아요. 근데 인민군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



1 남동생, 율케와 새로 지은 고향집에서

2 남동생 권태현씨

3 고향집 터에 새로 지은 한옥

4 옛집에서 나온 기와로 만든 담장

어요. 친정집 두 칸 마루에서 자고 왔다 갔다하고 밥도 해줬지 싶어요. 와서 밥해내라 해서 안 하면 바로 총 쏘 죽이고 했으니까 하라는대로 다 했죠. 인민군들 어슬렁 거릴 때 나는 뒤 안에 짚동(짚 뭉쳐놓은 것) 안에 들어가 숨도 안 쉬고 숨어 있기도 했어요.

피난도 갔어요. 덕동이라고 우리 외가가 있어요. 시골이지만 기와집도 많은 반촌이에요. 옛날에는 걸어 다니는 길인데 20, 30리 정도 돼요. 영천 쪽에도 우리 오촌이 있어서 거기도 온 식구가 같이 피난 갔는데 여름에 먹을 게 없잖아요. 감자 몇 알 나눠 먹고 떨어진 풋사과를 주워다가 생채로 만들어 먹었는데 새콤새콤했던 맛이 지금도 생각나요.

괴시마을에는 언제 어떻게 시집오게 되셨어요?

옛날에는 보부장사라고 장사꾼들이 보파리 이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왔다갔다해요. 근데 우리 자매 둘이 크는 거 보고 ‘저기 총각이 있다’ 면서 우리 어매한테 한번 가보자 했는 기라. 그래 가보니까 어느 시골 민촌이던가 봐요. 우리는 양반 가문인데 어매 눈에 안 찔렸지. 나선 김에 호지마을²에 지레 형님 따님(종고모)이 산다는 말 듣고 우리 친정 어매가 거기 찾아가서 자면서 우리 집에 딸이 있다고 얘기했는거라. 그때 내 나이가 이제 21살이에요.

그 이튿날이 장이었대요. 중매하는 형님하고 우리 친정어매하고 담 뒤에서 이 집, 신랑집도 봤대. 장날인데 우리 바깥양반(남편)하고 한 동갑인 고등학교 친구하고 뭘 사려고 었드렸는데 형님이 물었대요. “둘 중 누가 좋아?” 하니까 어매가 우리 바깥양반을 말한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바깥양반의 고등학교 친구였던 또 한 분은 31살 때 우리가 둘째 아들 낳고 살고 있을 때 죽었다고 그래. 가문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이 집(남편 집)하고는 참 차이가 있고 집도 오두막이더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찰에 들어갔다지. 그 분 모친하고 우리 안시어른하고 또 사촌 간이라... 참 인연도 별나지요.

치녀시절 사진



우리 안시어른은 한양 조씨, 옥천당에서 오셨어요.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우리 안시어른이 어디 점보는 데 가서 물어보니 뭐 남쪽인지 동쪽인지 거기 가면 글 하는 처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말도 들었대요. 하하

이제 함이 왔다갔다하고 거지 반 혼례가 정해진 후에 바깥 시어른, 시삼촌 형제분하고 중매한 형님의 바깥어른하고 세 분이 입암마을 우리 집에

2 괴시민속마을의 옛 이름



또래 친적들과 치녀시절 할머니(앞줄 가운데)

오셨어요. 그때는 포장도 안됐을 텐데 세분이 물어 들어가며 시골로 찾아오신거지. 우리 친정에서는 경주 나가 장 봐와서 큰 상 차리고 개 잡아서 동네 잔치하고 거창하게 맞았어요. 그게 면약(약혼)이었어.

이분들이 멀리서 왔다고 직접 처자를 선 보인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 친정엔 열 몇 살 먹은, 설거지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가가 사랑으로 손님들 세숫물을 떠가야 했거든. 근데 나한테 세숫물을 떠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채하고 사랑채 사이에 문틈으로 보면 지나가는 사람을 자세히는 아니어도 약간은 볼 수 있거든. 우리 시삼촌이 그렇게 나를 한번 봤다고 해요. 그러니 옳게 봤겠나. 한 자리에 같이 있어도 한번 보면 잘 기억이 안나는데...

면약(약혼)하러 와서 내 사진 하나 달라카는데 시골에는 사진사가 없어서 찍은 게 없다고 안줬거든요. 혼인도 약속한 마당에 남편 될 사람한테 촌스러운 시골 처자 사진 보여줘서 뭐하겠나 싶었던 거죠.



젊은 시절 남편 사진 보는 할머니



“
유과 한 상자, 엿 한 상자, 약과 정과 한 상자, 소
잡으면 소 다리도 하나, 이불 보따리 두어 개, 또 신랑 옷
도 옛날 버들 상자에 넣어서 보냈어요. 옛날에는 택배도
없고 차도 없었는데 어떻게 다 갖고 갔나 싶어요.
”

결혼 전 받은 남편 사진



혼례식 사진

신랑감 사진은 갖고온 거 보셨다면서요? 어땠어요?

내가 뭐 처음으로 남자 사진 봤는데 뭐 잘 알았겠나? 하하 그
래도 뭐 잘났잖아요.

집안 어른들이 면약(약혼)까지 다 했는데 내가 ‘시집 안 갈란
다.’ 할 수 있나. 옛날에는 어른분들이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
지. 송아지 잡고, 딸 형제 개혼(첫 혼사)이라고 성대하게 했어
요. 날도 따뜻하고 우리 친정집이 엄청 큰 집인데 집 안밖으
로 하객들이 뽁뽁하게 몰려들었어요.

음력 3월 스무 이렛 날 입암마을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초야
치르고 가을에 호지마을로 신행왔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옛날에는 유과 한 상자, 엿 한 상자, 약
과 정과 한 상자, 소 잡으면 소 다리도 하나, 이불 보따리 두어
개, 또 신랑 옷도 옛날 버들 상자에 넣어서 보냈어요. 옛날에
는 택배도 없고 차도 없었는데 어떻게 다 갖고 갔나 싶어요.



신행 와서 처음 파머한 새댁 모습

3일 만에 신행 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여름 지나고 그 해 가을 10월 가을걷이할 때 호지마을 시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비녀 찌르고 시집와서 영해 읍내 미장원 가서 난생처음 긴 머리 자르고 첫 파마하고 사진도 한방 찍었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쪽진 머리 잘랐다고...”

22살에 시집와서도 보니 우리 바깥 시어른이 굉장히 키도 크시고 인물도 잘 나시고 호지마을이 양반촌이라 맨날 한복 입고 두루마기를 벗을 때도 별로 없었어요. 시집와서도 바느질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첫 자녀는 언제 낳으셨어요?

내가 신행 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3월에 결혼해서 10월이니 일곱 달 짜였지. 배가 많이 불러서 신행 왔어요.

혼례 치르고 신행 첫 달에 바로 입태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설 쇠자마자 첫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숙모가 남의 애는 아닌가 싶어가지고 날짜를 세봤대요. 하하. 설 쇠고 낳았으니까 남의 애는 아니지 뭐. 하하

시숙모 세 분과 함께 찍은 사진



신행을 와보니 시댁 형편은 어땠나요?

그래 여기도 오니까 우리 친정에 비교하면 토지는 조금 적어도 먹고 사는 거는 살 만했고 배 굶을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른이 4형제이신데 그 중 둘째 분은 살아계시고 셋째, 넷째는 6.25사변 때 행방불명 되셨대. 그래서 셋째 시숙모가 나하고 띠동갑 되는 10살 먹은 딸하고 3살 적은 딸하고 형제 데리고 살림 이고 지고 큰집에 의지해서 와계시더라.

또 맨끝 넷째 시숙모는 남편 행방불명 되고 12살, 9살, 7살 아들 셋을 줄줄이 데리고 큰집에 와있는거라. 아이고 모두 복도 어이 그래 없었는지...

셋째 시숙모님은 딸 형제 데리고 큰 집에 와서 밭일이나 허드렛 일이나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시집와 보니까 우리 안어른은 시조모님 같고 시숙모님은 안어른 같고 그랬어.

친정에서 내가 살림을 많이 하고 큰집에서 컸지만 그래도 시집오면 뭐가 틀리고 안그러나. 22살에 시집 와서 뭐 암만 잘한다고 해도 얼마나 잘했겠나. 근데 시숙모님 덕을 많이 봤어요. 제사할 때나 김장할 때나 앞장 서서 다 하시고. 우리 안어른도 시숙모만 믿고 다 맡겼어요.

우리는 일 놔두고 그냥 못있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어른은 암전하시고 칠칠하고 아주 양반다우셔. 일은 동서가 알아서 다 하시고 그랬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오셨잖아요.

시댁에선 좋아하셨겠어요?

신랑 되는 바깥양반은 막 투덜대고 난리였어요. 장가가기 싫은데 집에서 억지로 보낸 거였는데 애도 덜컥 생겼다고 하니 불만이 태산인거라. 그래도 안어른은 여자는 붉은 치마 입을 때 애를 가져야 한다고(일찍 갖는 게 좋다고-) 보듬어주셨어요.

사실 우리 시어른 혼례 할 때 애기도 기가 맥혀요.

안어른(시모)이 18살에 시집왔는데 우리 사랑어른(시부)이 12살인 거라. 6년 차인데 시조부님 상에 갔더니 우리 바깥시어른이 밖에서 돌 갖고 장난치고 놀고 있더라케. 하하

우리 안어른은 부모님이 안계셨어. 옛날엔 양반 찾아가지고 혼인시킨다고 어른들끼리 정해놔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18살에 오신 우리 안어른(시모)은 결혼할 나이가 됐지만 바깥어른(시부)은 12살 밖에 안 됐잖아. 그래가 어째어째 아들을 낳았는데 흥진 앓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둘째도 돌아가시고 7년 있다가 우리 바깥양반을 낳았다케. 앞서 아들 둘을 먼저 보내고 7년이나 애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애가 땀졌어.

그래도 우리 바깥양반 낳고 그다음에 3년 터울로 우리 시동생을 낳았어. 그러니 내가 시집오니까 동기는 시동생 하나뿐이고 그러니 내가 시집살이 한 건 없지. 어려운 거는 시숙모님과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



할머니 내외와 시동생 부부(좌우)

그럼 분가는 언제 어떻게 하신 건가요?

우리 바깥양반이 30살 돼가 아는 사람 소개로 ‘쌍용양회’라고 영월에 시멘트 만드는 직장에 갔어요. 10년 시집 살았는데 이불 보따리 하나 냄비 하나 솥단지 하나 밥그릇 달랑 두고 살림을 나왔어요.

영월 시멘트 공장에 취직해서 살 때 처음으로 연탄을 땀는데 흰 바지저고리가 새까매지고...맨날 불 꺼뜨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영월에서 냄비 하나 사고 숟가락 하나 사고 해서 그래 그래 살았지요. 그런데 분가해서도 3년 터울인 시동생한테는 부모 보다 극진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밖에 못 갔지만 너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대학교 시킨다.’ 이러면서 일반대학은 아니어도 대구 청구대학 야간을 시켰어요. 학비는 일반 대학보다는 조금 싼지만 등록금이 고 입학금이 모두 우리가 빚내서 보냈지.

30살에 입사해서 우리 딸 낳고 살 텐데 첫 월급이 만원이었어요. 그때는 (대출)이자도 굉장히 비쌌어요. 시골에선 친정이나 시댁이나 농사만 지으니 돈이 있나. 시동생도 고생 많이 해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서울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서울 압구정동에 3층 집도 짓고 그랬는데, 그 가진 부동산이 화근이 돼서 화병이 생기고 이제 돌아가신지 5, 6년 됐어요.



60대 시절 부부, 대구 집에서

남편 직장 생활은 무난했나요?

처음에는 영월 시멘트 공장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삼척 삼화 카는 데를 가게 됐어요. 사택에 들어가 살다가 마흔 즈음 됐을 때 애들 교육도 시켜야 해서 대구로 들어갔죠. 대구와서도 연탄 땀는데 10년 넘게 살다가 집수리해서 연탄보일러로 바꾸고 살았어요.

그럭저럭 승진하고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몇 년 안돼서 쌍용양회 회사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같이 시골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벌도 백도 없는 사람을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명퇴했을 때가 우리 영감 쉰 살도 되기 전이에요. 과장되고 좀 있으면 부장되려고 할 때였고 우리 애들도 딸만 대학 했지, 아들 둘은 아직 대학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회사를 나와서

남편분은 뭘 하셨나요?

그래 밀려 나와 가지고 받은 퇴직금이라도 잘 보관하고 잘 불려야 하는데 바깥양반 친한 사람이 그 퇴직금 그거를 보고 회사를 같이 동업하면 돈 벌 수 있다고 꼬신거예요.

어디 가서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내 회사처럼 열심히만 하면 돈 버는 줄 알고 덤뻐했는데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투자한 돈으로 몇 사람 월급 주고 사무실 관리비 주고 뭐 주고 하면서 돈만 축나고 회사는 안돌아가고... 1, 2년 버티다 더 이상 투자할 돈도 없을 때 같이 하던 사람이 ‘그만두자’ 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제일 어렵고 눈물 많이 뺨 거는 쌍용 회사 그만둔다고 할 때, 또 사업해서 안됐을 때예요. 그 외에는 내가 크게 불행하게 지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도 끝까지 60까지 있었으면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사는 것도 나아졌을 건데...



장남 가족과 함께

그럼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삼남매 대학은 다 시켰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재수 삼수 많이 있었지만 3남매 모두 재수 삼수 하나도 안하고 진학했어요. 큰 딸은 계대 미대.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졸업한 후에 지 아버지가 회사 그만뒀으니 그나마 시킬 수 있었고. 큰 아들은 이제 영남대 4년 하고 28살 때 지금 며느리와 결혼도 시켰어요. 대구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고 방한 칸 마련해서 보낸 거죠. 우리 장남 용희는 평생 현대 중공업 다니다가 퇴직하고 울산서 현대건설 기계 납품하는 작은 회사에 4, 5년째 사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 준희는 서울대학교 갔어요. 서울대학교 입학해서는 자기가 벌어서 입학금이고 등록금이고 생활비고 다 내고 입주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자기 힘으로 학교 다녔어요. 가는 아르바이트만 좀 줄였으면 외교학과여서 외무고시를 봤을텐데... 아까워요.

졸업하고는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이만치 고생하면 돈 벌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중고자동차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그만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누가 사업한다고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만 믿고 시작해서 처음에 좀 고생했는데 5년 전에 자동차 폐차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나서 성공했어요. <환경기술> 잡지에 실리고 표지에도 나왔어요. 아는 책도 내고 강의도 하러 다녀요.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 결혼이 늦었어요. 38살에 해갖고 40살에 첫 애를 낳았는데 지금 고2가 됐어요.

차남 사진과 기사가 실린 잡지 /
차남 가족들과 함께





괴시마을로 돌아오신 건 언제가요?

20년 전에 정부에서 (괴시마을의 한옥을) 다 수리했잖아요. 수리한 후에 남 줄 수 없고 ‘우리 조상 집이니 내가 지키고 산다’ 면서 영감이 먼저 들어왔어요. 70대가 돼서예요.

2003년도 4월 달에 이사 온 거지요. 나는 그때도 왔다 갔다 하다가 대구 집이 재개발 들어간다고 해서 5년 전에 대구에서 완전히 퇴거하고 들어왔어요.

20년 전 처음 집 수리를 마쳤을 때 나도 같이 와야 밥이라도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밥솥하고 냉장고 하고 세간살이를 작은 트럭에 싣고 왔는데 와보니 완전 옛날식 깊은 부뚜막에다가 옛날 불 때는 부엌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올 때 가스레인지 하나 갖고 왔는지 그것도 놓을 데가 없어서 시멘트 블록 가져다가 대충 뒀어요. 수도꼭지도 마당에 하나 뿐이고 부엌에 수도가 없었어요.

우리 바깥양반은 자기 조상이 옛날 살던 집이지만은 몸은 웅참지. 머리는 아프지... 불편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도 뭐라 하는데 나는 그랬어요.

“하이고 여보 여보 옛날 조상님들도 이래 살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수세식 수돗물도 나 오고 안 편해요. 나는 별로 안 불편해요.”

그해 추석 전까지는 불 때는 부엌으로 대충 살았는데 둘째 며느리까지 본 뒤에는 이래 가지고 애들이 불편해서 안되겠다 싶은 거예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포항에서 사람 불러 집수리를 다시 했어요.

깊은 부엌을 깨뜨려서 높이고 약간 평지로 만들어 수도와 씽크대 들고, 부엌 공간을 나눠서 실내에 화장실을 넣고 세탁기 공간도 만들었어요. 부엌과 방에 보일러 놓고 정화조 문고요. 부엌에서 밥해 먹을 수 있도록 추석 밑, 양력 8월에 그렇게 수리를 마쳤어요. 거의 내가 설계를 다 한 셈이지요.

처음 4월에 왔을 때는 여름에 샤워를 할 수가 없어서 저 마당 뒤쪽 하나 있는 수도꼭지에 고무 호스를 연결해서 옆에 판자 쳐놓고 샤워를 했는데 모기가 얼마나 뜯어대는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부엌으로 수돗물을 당겨오니까 샤워도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주인양반이 아이구 시원하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하하



“
하이고 여보 여보
옛날 조상님들도 이래 살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수세식 수돗물도 나오고
안 편해요. 나는 별로 안 불편해요.”

20년 전 수리한 현재 부엌



그리고 2005년도엔 우리 둘째 며느리가 36살에 첫 애를 낳았는데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귀한 둘째 손자를 결혼하고 4년 만에 낳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키웠어요. 한 달 한 번 말일에 맞춰 세놓은 대구 집에 가서 세금 정산하고 하룻밤 자고 오전에 여기(괴시마을) 들어와서 반찬 대충 만들어 놓고 월요일 날 오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요. 그렇게 한 13개월을 봐줬어요.

서울, 대구, 영덕 괴시마을 이 집까지 오가느라 내 허리가 더 굽었어요. 지하철 그거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갈 때마다 뭐라도 꼭 들고 갈 게 있어. 서울에 오면 또 뭐라도 들고 올 게 있어요. 2005년도 가서 13개월 봐줬어요.

그런 세월을 왔다 갔다 했는데 며칠 전에 업어 키운 손자가 18살 고2, 손녀는 중1이 돼서 집에 왔어요. 아이들이 다 큰 걸 보니 얼마나 반갑던지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고향으로 마실 가는 할머니를 배웅 나온 할아버지

남편분과 해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어떠세요?

바깥양반이나 나나 널 모레면 90이에요. 우리가 만나 한 67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에 서로 싫은 소리도 했을 거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마주 앉아 밥먹고, 이래 같이 해로하는 게 좋은 거지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으니 ‘열 효자 보다 약처 하나가 더 낫다’는 말이 맞다 싶어요.

**싫은 소리 하다가도 때 되면 또 밥에 이것저것 차려가
"이거 맛있죠? 맛있죠? 이거 잡수소, 저거 잡수소하고."
그럼 또 풀려요.**

내가 허리 협착증 시술도 하고, 미끄러져서 허리에 금가는 바람에 시술도 2번 했어요. 그 고생을 하느라 허리가 영 굽었어요. 또 급성뇌경색을 앓아서 아직도 발바닥이 찌릿하고 걸음을 옮길 수 없어요. 그래도 오른손은 괜찮으니까 텃밭에서 채소 뜯어서 만드는 거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

봄 되면 또 작년 가을 삭혀놓은
고추 매콤하게 조려서 먹고,
양파도 새콤달콤하게 해가지고
아삭아삭하게...

”



봄 되면 또 작년 가을 삭혀놓은 고추 매콤하게 조려서 먹고, 양파도 새콤달콤하게 해가지고 아삭아삭하게...만들어서 내 놔요. 그럼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세요. 우리 바깥양반 뭐든 해놓으면 참 맛있다는 소리는 잘해요.

그래도 우리 둘은 식사도 잘 챙겨 먹어요. 아직까지 속 아파서 입원한 일 없고 둘 다 먹는 거는 골고루 다 잘 먹어요. 나만 좋아하고 저 사람은 못 먹고 그런 거 없고 육미나 회나 둘 다 잘 먹어요.

다른 사람은 ‘나이 많은 남편 받드는 게 귀찮지 않은가’ 해도 귀찮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좀 힘들 때는 있지 내 건강이 안 좋으니까. 힘들 때는 있어도 그래도 뭐 수돗물 나오는데 밥만 해가지고 세 끼 먹으면 되고 집안에 나는 채소 뜯어가 숨씨대로 하면 되고...

**"그래도 같이 있으면 마음 든든하고
서로 믿고 그리 지내지요.
그게 젤로 좋아요"**

서로의 바람벽이 되어 살아온 67년



권태갑

1935년 을해생, 89세



"싫은 소리해도 돌아서면
서로 밥 챙겨요.
그래 기대 의지하며
둘이 사니 그게 좋아요."



"봄 되면 또 작년 가을 삭혀놓은 고추
매콤하게 조려서 먹고, 양파도 새콤달
콤하게 해가지고 아삭아삭하게...만들
어서 내놔요. 그럼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닮은 미소

김위순 (1935년 을해생, 89세)



“우울하지 말고 활발하게 살아요.
내가 행복해야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야.
젊을 때는 고생도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해요.”





괴시1리 하천가에 자리한 2층 주택.

초록색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자그마한 정원이 나오고 현관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니 거기 복사꽃처럼 환히 웃는 한 분이 서 있습니다. 괴시마을에선 축구감독 '신태용 모친'으로 더 유명한 김위순 할머니.

최근 새로 고친 실내는 더도 덜도 없이 깔끔한 신식인데 소파 위에 금분으로 쓴 액자가 눈에 띄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병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하략)

-지혜로운 이의 삶

30년 전부터 내 집처럼 다닌다는 대구 사찰의 스님이 주신 글귀라고 소개하십니다. 집안의 중심에 걸어두고서 오며 가며 마음결을 다잡게 하는 내용.

더 묻거나 듣지 않아도 집안 큰 어른의 품격이 전해집니다.

이런 지혜는 만들어지는 걸까. 타고나는 걸까.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여생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할머니의 숨겨둔 이야기가 신태래 풀리듯 시작됩니다.



할머니 고향은 어디세요?

친정은 지품면 놀곡리¹예요. 놀곡에는 우리 경주 김씨가 100여 호 살았어요. 타성은 없었어요. 집은 농사짓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어요?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어른들이 우리 클 때는 여자애가 학교 가면 무당 된다 했어요.

여자는 학교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지요.

옛날에도 아들자식은 초중고 다 보내고 서당에서 한문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딸은 글 한 줄 안 가르쳤어요. 가정교육이라카는 거는 바느질 하는 거, 상 차리는 거, 반찬 만드는 거 이런 거 가르쳤지... 그게 지금껏 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대학 시키려고 그래 애를 썼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됐어요. 아직도 못 배운 게 두고두고 한이에요.

그런데 한글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옛날에 야학이라고 있었어요. 동네 사는 친척 청년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밤에 거기 가서 동지 설달부터 두 달간 배웠어요. 그때가 17살인가 18살인가 그랬어요. 가가 거저를 두 달 배워 가지고 까막눈 면하고 지금껏 써먹고 있어요. 그걸로 천수경도 읽어요. 그래도 내가 외우는 경전이 세 가지 있어요. 반야심경, 신묘장구대다라니. 그리고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이에요.

가가거저만 배워서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노력하신 거예요?

수도 없이 듣고 또 듣고 한 자 한 자 읽고 했죠. 진심을 다하면 다 돼요. 안되는 게 없어요.

1 지품면 놀곡리에는 임진왜란 때 경주에서 영덕으로 피난왔다 정착한 김주린(1553-1650)을 입향조로 한 경주 김씨 집성촌이 있다. 약 400년 동안 이어져온 집성촌의 중심에는 1600년에 지어진 경주김씨 놀곡종택이 자리한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요. 딸은 가문 있는 집에 보내야 된다고 평산 신씨 집안에 시집 보냈어요. 지품면 지품리에 그 집안이 많이 사시더라고. 결혼은 19살에 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 6남매인데 딸 셋을 우리 어머니가 모두 맏이한테 시집 보냈어요. 내가 딸 셋 중 둘째인데 우리 언니도 맏며느리로 가고, 나도 그렇고 우리 동생도 맏이에게 시집갔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차남에게 시집을 왔거든요. 차남한테 시집을 와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동서들이 별났잖아. 제사 지낸다고 모여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장작불 때서 전 부치고 다 차려놓으면 그 음식을 한 쪼가리도 안줬대요. 새댁 애먹었는데 가져가서 애들 먹이라고 줘도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일만 실컷 시켰대요. 형님이 안 챙겨주니까 제사음식 한 점을 못 갖고 와서 애들 먹이지도 못한 게 그리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딸 셋을 전부 맏이한테 줘놔요. 맏며느리가 골병드는 자리잖아요. 하하

그래도 여자는 대접받아야 된다고... 맏며느리가 고생은 해도 대접은 받잖아. 시어른들이 세상 떠나면 맏며느리는 잔 올리지만 둘째 며느리는 잔이 없잖아요.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대접받으라고 그렇게 맏이한테 시집 보낸거야.

그래서 평산 신씨 맏며느리로 대접받고 사셨어요?

그래도 나는 시집살 때 맏며느리라고 대접 받았지요. 신랑하고는 나이차가 꽤 나요. 7살. 혼인할 때 내가 19살. 남편은 26살이었어요.

이름은 신자 두자 기자. 신두기.

이제 혼례를 치르면 옛날에 아주 힘든 사람들은 도신행이라고 혼인한 당일에 신행 가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혼인해서 바로 시댁으로 안들어가고 친정에서 1년 묵고 가을에 보내주셨어요.



그 친절에 있는 1년 동안은 신혼 재미가 있었겠어요?

신혼이고 말고가 있나요. 그때는 (남편이) 군에 가버렸는데... 집에 없었어요. 6.25사변 지나고 우리가 결혼했는데 그때도 군에 가면 죽는다고... 힘들었어요. 요즘에야 그때 비하면 편하지. 바깥양반은 군대 마치고 돌아와서 시댁에서 농사짓고 10년 정도 살았지 싶어요. 시어른 돌아가시고 내가 초상을 치르고 1년 동안 상옷을 입고 빈소 차려 놓고 초하루, 보름날 상석 드리고 했어요. 안어른은 오래 계시다가 우리가 분가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맘머느리로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맘머느리 노릇은 못했어요. 시어른들 끝까지 모시지 않고 분가 나왔으니까. 안어른은 밑에 동서가 모시고 살았지요.



장남에게 시집가셨으면 시댁에 시동생도 있었겠네요?

시집가서 보니 시동생이 7남매였어요. 막내 시누가 기어다니더라고. 하하 우리 안어른(시모)이 늦게 낳으셔서 가지고. 마흔 다섯에 낳았다카던가. 처음에 시댁에 가면 초성 자리를 깔아주는데 거기 새댁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갓난쟁이가 뽀뽀뽀 기어오더라고요. 막내 시누가... 그 시누가 올해 71살이라고 카나. 용띠. 같이 늙고 있어요. 하하

우리 바깥양반 바로 아래 큰 시동생은 자기 형보다 3살 적은 23살, 셋째 시동생은 나하고 한동갑 19살. 그 밑에 범띠 16살이 막내아들이고 그 밑으로 갓난쟁이까지 딸 셋이 쪼로록 있었어요. 그래서 7남매지.

시댁은 우리 친절하고 다르게 담배농사도 지었는데 나까지 일할 건 없었고 남편 군대 가뽀고 시어른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시동생들 같이 키웠다고 봐야지요. 그래도 시누하고 시동생하고 뜻이 잘 맞아서 우애있게 지내고 잘 따라주니까 내가 수월했어요. 시집살이 10년간은 아래 동서는 없었지만 힘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분가한 후 남편분의 직업은 뭐였나요?

바깥양반이 뭘했노카면 방앗간, 정미소라 카지요. 거기 취직해서 여기 괴시3리로 왔어요. 내가 30대였고 그 양반은 40대 가까이 됐을 때지. 그때는 내 집을 못 챙기고 남의 집에 셋방 살았어요.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2남 2녀. 첫째가 딸. 장녀, 둘째가 아들, 셋째가 지금 같이 사는 딸, 막내가 신태용 감독이에요. 막내는 내가 35살에 낳았어요. 4남매가 3년 터울이에요. 누나는 괴시3리, 신태용은 괴시1리 살 때 태어났어요. 인터넷 이런데 신태용 고향을 지품면 원전리라 써놔다 카는데 거기는 우리 시택이고 신태용은 여기 괴시1리에서 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를 안태고향(태어난 고향)이라고 해요.

여기서 잠깐!



신태용(55)감독은 영덕 대게만큰 축구가 유명한 영덕에서 태어난, 한국축구 최고의 스타 감독이다. 뛰어난 기술과 지능적인 플레이로 '그라운드의 여우'라 불린다. 선수 시절엔 청소년 월드컵대표, 올림픽대표를 거쳐 1992년 국가대표 A팀에 승선했고 천안 일화(현 FC성남)에 입단, 골장 신인왕으로 등극했다. 2004년까지 '성남 레전드'라는 별칭으로 총 9회 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됐고(5년 연속, 최다 수상), K-리그 득점왕, 리그 MVP도 두 차례 오르는 등 깨지지 않는 기록을 달성했다. 결국 선수에서 코치, 다시 감독까지 맡으며 성남 일화를 이끌었다. 2014년부터 국가대표A팀 코치를 역임, 2016년 리우올림픽 8강을 이룩했다. 2016년 ~ 2017년 U-20청소년 월드컵 감독으로 팀을 16강에 올려놓았고 2017년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급파되어 러시아 월드컵을 이끌었다.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2023년 K-리그 명예의 전당에 3세대 대표선수로 최초 헌액되었다.



분가 후에 살림살이는 어땠나요?

항상 정미소만 나가니까 기술도 없고 직업에 발전이 없어요. 나는 참 부끄러운 말로 생활비를 모르고 살았어요. 생활비를 받아봤어야지. 그때 방앗간에 서는 월급을 안 주고 쌀만 줬어요. 그 쌀을 팔아가지고 살림을 한 거지. 월급 대신 보리쌀 나오고 쌀 나오고... 평생 월급봉투라는 걸 못 받아 보고 살았어요.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들었어요. 절에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내가 서른 살쯤부터 갔으니까 60년도 넘어요. 처음에는 여기 괴시3리 살 적에 못골이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다. 옛날에 거기 절이 있어서 이 동네 사람들도 많이 다녔어요. 대구로 나갔을때는 금강사라고... 한 30년 거기 다니다가 다시 괴시마을로 들어와서도 거기 가요. 요즘은 힘이 들어서 자주는 못가도 행사 있을 때마다 가지요. (신도회장으로 공로패도 받으셨답니다.) 요즘은 요 아래 흥련암에도 가요.

대구 금강사 공로패



불교에 귀의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말아들이 있어요. 가가 5살 먹어가지고 갑자기 아프더라고. 암만 약을 써도 안돼요. 그런데 누가 절에 가보래요. ‘스님 옆에 갔다오면 괜찮을끼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못골 여기 절에 갔어요. 미역 한 오리(한 줄)하고 실한 타래하고 쌀 좀 갖고 가면 스님이 알아서 해줄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칠성각에 미역 올리고 실타래 올리고 쌀 가져간거 공양지어서 부처님 전에 올리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럭하고 집에 오니 진짜 애가 낫더라고요. 그 후에 절에 열심히 땡기게 된기라. 우리 장남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이후로 말아들은 무탈하게 컸나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가 20살도 안됐을 때예요. 1983년 4월 새벽이었어요. 옛날에 대구에 이름난 유흥장이 있었는데 우리 애가 처음 거길,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러갔나봐요. 전기 합선이 됐더니 새벽에 큰불이 난 거예요. 스물 몇 명이 죽고 50명 넘게 다쳤대요. 대부분 어린 아아들이고 청년들이었어요. 정말 끔찍해요.

새벽에 소식 듣고 달려가보니 우리 애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누워 있는 거예요. 순간 앞이 캄캄해지고 딱 내가 실신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때 대학에 안 가고 다른 걸 배워보겠다고 대구로 갔었다고 해요. 친구를 만났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예요.



불이 막 번지니까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잖아요. 그 엄청난 불길에 뿌린 물이 뜨거워져서 막 쏟아져 내린 거예요. 우리 애는 그 물에 온 몸을 다 데인 거예요. 전신화상이라도 30%는 사는데 50%는 못산대요. 근대 야는 50% 화상이었어.

목숨이 위태로운 걸 정말 기적같이 살려났어요. 근데 치료하는 과정이 더 끔찍한 거예요. 매일 거즈를 갈아야 하는데 피부가 다 벗겨져 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건 말로 못해요.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아직도 그 비명이 생생해요.

그때 또 설상가상으로 애들 아버지도 편찮아서 누워 있었거든요. 암만 약을 써도 차도가 없어요. 남은 애들도 어려서 밥도 챙겨줘야 하는데 말이한테 매달려 있느라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이 없었어요. 울고불고 할 여유도 없었죠.

남편 분은 어찌다가... 지병이 있으셨어요?

어릴 적에 시어른들이 강구에 사셨대요. 어릴 때 짐을 싣고 가다가 그 자전거하고 같이 넘어졌는데 그때 허리를 다쳤어요. 그걸 고치지 못하고 평생 지병을 갖고 살았어요. 평소에도 걸음을 비딱하게 걷고 그랬어요. 참, 약도 오만가지 해드리고 했는데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뭘 잘못 드셔서 체했는지 갑자기 드러누워 운신을 못한 게 한 달 정도 됐어요.

말아들 화상 치료는 차도가 좀 있었나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진정이 빨리 돼서 엉덩이 살을 때 내 이식도 했어요. 애도 기분 좋아하고 옆 병상의 아줌마도 우리 애 인물 좋다 하고 서로 웃고 그랬어요.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숨을 좀 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합병증이 생겼어요. 정말 거짓말 같이 너무나 빨리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졌고 돌이킬 새도 없이 가버렸어요.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살아났다 싶을 때 느닷없이 가버렸으니 세상 허망하고 말도 못해요. 땅이 꺼지는 게 이런 거구나 했어요. 어릴 때 고생해서 살려냈는데 스무 살도 안돼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말이가 가버린 거예요. 키도 크고 인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태용이보다 더 잘났어요. 엄마 위하는 진짜 효자였고요.

가를 그래 허망하게 보내고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갑자기 앞이 안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 터지면 왜 앞이 캄캄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앞이 새까맣요. 뵈지를 앓는 거예요. 무서워서 집 밖엘 못나갔어요.

아버님은 아드님 소식을 모르셨나요?

알긴 알았지요. 알긴 알았어도 본인이 거동을 옹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신 거 같아요.

멀쩡하던 아들 보내고 나서 시름시름 하던 애들 아버지도 바로 세상 땔어요. 그 해에 5월에 말아들 떠나고 한 달 뒤에 남편도 가버렸어요. 내 나이 49살. 남편은 57살이었어요. 환갑도 못하고 가신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고 말문이 막혀요.



일화 선수 시절 잡지 기사 / 프로선수 시절 신문기사

아버님 돌아가실 당시에 자녀들 나이는 어떻게 됐나요?

신 감독이 강구중학교 1학년 다닐 때예요. 중1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마카 어렸지. 나중에 일화 가서 신인왕 하고 막 뜰 때 잡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중학교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갖고 충격을 많이 받았대. 그래서 고생만 하다 가신 아버지에게 뭔가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서 태극마크를 드리겠다고 결심했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고 카더라. 뒤에 그 약속 다 지킨 거잖아요. 그럴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겠어. 어린 아가...

그 위에 누나, 지금 나하고 사는 아가 중3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너무 갑자기 닥친 일이라 실감도 안나고 황망했지요.

남편 돌아가신 후에 아이들과 어떻게 사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자식들 모두 대구로 나가 있을 때라 따라서 나도 대구 옆 경산으로 갔어요. 먹고 살 일은 막막한데 뭘 기술이 있나요. 뭘 할 게 있겠어요.

영남대 앞에서 학생들 많이 다니는 분식점에서 일했어요. 한 10년 넘게 했지요. 그러다보니 내가 애들 살뜰하게 돌볼 겨를도 없었어요. 내가 먹고살기 바쁘고 저들은 우에 컸는지도 모르게 다들 잘 자라졌어요.

신 감독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스카우트 돼서 맨날 숙소에서 살고 딸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했고... 자식들이 애먹여서 속 썩고 한 일도 없어요. 정말 이지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식들 대학까지 못시킨 거예요. 두고 두고 미안해요.

신 감독님은 축구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태용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을 그리 잘 차더라고요. 팔자가 타고 났나 봐. 아이들 아버지가 시골에 살아도 마을 청년들하고 막 공 차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걸 잘하더라고. 그런 끼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좀 닮긴 했나 봐요.

태용이 초등학교 다닐 그때는 또래들이 축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긴 해도 대부분 빛을 못봤지요. 태용이 축구를 계속 시키니까 모두 그러더라고요. 아아를 축구 시켜가고 뭐할라고 그라노. 축구가 무슨 희망이 있노. 그러니까 빨리 치우라 카더라고. 주변에 축구 차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일찌감치 치워라. 아 장래를 위해서... 다들 말렸는데 그래도 지가 좋다는 데 어떡해요. 워낙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서로 데려가려고 했죠.

정 선생님이라고. 영해중고에 체육교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부모보다 태용이를 더 챙겨주셨어요. 태용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강구중학교로 스카우트 돼 있었거든요. 근데 더 큰 물에서 뛰려면 대구로 나가야 된다고 선생님이 강하게 밀었어요.

근데 태용이가 중학교를 대구로 옮기려고 할 때 마침 대구가 경북에서 분리돼서 대구 직할시가 됐어요. 여기 애들이 대구로 못 나가게 된 거라. 대구는 안되고 안동으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정 선생님이 나보고 일단 강구 중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께 태용이는 축구 안 한다고, 절대 안 시킨다고 말하고 대구로 전학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학교 가서 암만 말해도 안 믿어줘요. 한 4번을 찾아가서 겨우 애를 대구로 전학시켰죠.

태용이는 안동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정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태용아, 니 안동 가서 용머리 되지 말고 용 꼬리가 돼도 대구 가는 게 낫다! 대구 가자.” 이래가지고 정 선생님이 결국 경북사대부중으로 태용이를 보냈잖아요. 사대부중 졸업하고 명문 대구공고로 갔다가 대학까지 갔으니까요. 중학교부터 애를 대구로 보낸 건 태용이 미래를 위해 잘한 판단이었다고 봐요.



“
아이들 아버지가 시골에 살아도 마을 청년들과
막 공 차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걸 잘하더라고. 그런 끼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좀 닮긴 했나 봐요.
”



“

나중에 니가 혹시나 공을 못 차게 되면 그
래도 체육 선생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라.
그래도 사람이 우물을 파도 한 우물로 파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

이제 대구공고에서 청소년대표팀(U-16 대표팀)에 선발돼서
엄청 주목받고 나니 연 고대, 건국대 등등 서울의 유명한 대
대학 세 군데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또 대구에서도
영남대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왔고요.

태용이가 영남대 가면서 “엄마 같이 가자” 그래요. 지가 뭐라
고 하나면

“엄마 서울 가면 낮선데 나는 그냥 여기 지방 살릴란다. 영남
대 갈란다.” 이래요.

내 생각은 달랐지만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해라
마라 합니까. 그래도 대구 영남대 갈 거면 체육학과에 들어가
라는 얘기는 했어요.

“나중에 니가 혹시나 공을 못 차게 되면 그래도 체육 선생이
라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라. 그래도 사람이 우물을 파
도 한 우물로 파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영대 체육학과에 들어갔어요. 엄마 마음에 영원
히 공을 찰 순 없으니까 뭐든 할 게 있어야 된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영남대학교에 들어가서 골도 많이 넣었어요. 영남대
학교에선 신태용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더라고요.²

대학교 졸업할 때도 여기저기 구단마다 서로 데려가려고 난
리가 났어요. 지는 포항 오고 싶어 했는데 박종환 선생님이
기어이 일화에 데려간다고 다른 데를 못가게 하니까 결국 일
화로 갔잖아요. 박종환 선생님 곁에 안가고 미루고 미루다가
할 수 없이 가는데 “엄마 같이 가자” 카더라고. 지 야단맞는
다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선생님이 막 야단쳤어요. 태용이
보고.

“니 혼자 오지 어머님 힘들게 모시고 오느냐...”고.

그렇게 일화에 가서 계속 뛰었잖아요. 선수 은퇴하고 코치도
하고 감독도 했어요.

² 영남대 재학시절 신태용은 실업팀과 대학팀들이 모두 참가하는 전국축구선수
권대회에서 대표팀으로 차출돼 4강과 결승전에 출전했다. 결국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고, 만년 하위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청소년대표와 올림픽
대표를 두루 거쳤다



신감독의 선수시절
승전 기사를
모두 모아둔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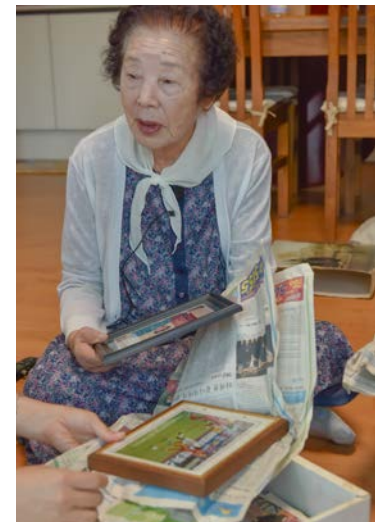
옛날 신문들도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태용이가 지 경기할 때 신문에 나면 다 모아 달라고 했어요. 경산에서 여기로 이사올 때 박스째 들고 왔는데 이번에 열어 보니 이래 많았네요.

지금 손자도 거기(일화, 현 성남FC) 가 있대요. 신감독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공 차요.

둘째 손자는 공 차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호주에 가있었거든요. 거기서 맨날 골프 치는 것만 본다더니 한국에 나와 가지고 공부 안 하고 어느새 축구를 한다케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 보고 “재는 공 차는 거 보지도 않았는데 우째 공을 차노?” 하니까 “어머님, 개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잖아요. 하하” 카더니만 진짜 그리로 갔어요. 지금 안산FC에 있대요. 아버지, 형 따라서 K-리그에 들어간 거지.

큰 손자는 본래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어요. 내가 다리가 아파 가지고 서울 병원 다닐 때 저그 집에 쉬러 가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가고 없잖아요. 애가 다리 아픈 나를 문 앞에 세워놓고 골키퍼를 시키는 거예요. 큰 손자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맨날 가방 둘러메고 숙소 간다고 문간에 서 있고 그랬어요. 짐 싸서 숙소 가는 아빠를 늘 본 거지.



1 스크랩 상자 속 액자를 보며
2 손자와 할머니



신태용 감독과 아들 둘



맏아들 보낸 후로 절은 좀 소원해지신 건가요?

절은 태용이 때문에 계속 다녔어요. 맏이는 그래 가버렸으니 어쩔 수 없고... 태용이가 공을 찬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땀나게 되더라고요. 태용이는 중학교 때부터 숙소 생활 해서 내가 돌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기도 밖에 없잖아요. 절하고 염불하고 발원 기도하고...내가 매 달릴 건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럼 아들 경기하는 거 직접 본 적은 있으세요?

가슴이 떨려서 못 봐요. 처음에 경기 보러 갔을 때 마음이 너무 조이고 떨려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들이 소주를 잡숯고 앉았더라고요. 그래가 “아저씨 그 소주 한 잔 날 주소.” 술도 못 먹는데 한 잔 얻어먹었어요. 하도 진정이 안돼가고. 소주 한 잔 얻어 먹고 나니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마지막에 한 골 넣었어요. 그러고는 내가 아예 말했어요. “야야 내는 니 경기 하는데 안 갈란다.” 하하

그래도 어머니한테 선물은 확실하게 하셨네요. 아들이...

그래 한번 놀래가지고 직접은 경기장에 못가고 경기할 때는 약국이나 어디 들어가서 텔레비전 켜놓고 경기 봐요. 한참 텔레비 중계를 보는데 누가 그래요.
 “어머님은 스포츠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니요. 그냥 나와서 보고 있어요.”

저는 ‘누구누구 엄마다’ 말 안합니다. 어디 나가도 내가 ‘신태용이 엄마’라는 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도 보면 안대요. 신태용이 하고 나하고 얼굴이 똑같대요. 하하

관세음보살을 닮은 미소



신태용님 경기 때 마다 구장에 응원 안 가고 절에서 염불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앉아서 신태용구대다라니 21번 하고 아침에 천수경 꼭 쳐요. 천주 돌리면서 광명진언 하면 딱 1시간 걸리고요.

신태용이 국가대표 감독 돼가지고 독일하고 경기해서 골 넣었잖아요. 아이고... 그땐 심장이 쪼개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경기는 안 보고 대신에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절에도 열심히 다녔어요. 108배, 1080배 절도 술하게 했지요. 3천배 하려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했어요. 그리고 두 다리 다 관절 갈아 끼는 수술했지요. 관절 수술하면 다른 사람은 절을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절 잘해요. 그래도 3천배는 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안하고 있어요.
 내가 외우는 경전이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반야심경, 신태용구대다라니.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 지금도 심심하면 혼자 독송해요. 요새는 좀 게으름피고 있지만 이제 또 신태용이 뭐한다 하면 틀고 앉아서 아침저녁으로 시작하죠. 저녁에는 천주 돌리면서 나무관세음보살 염불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받은 상패들

어릴 때 두 달 동안 가가거거 배운게 다인데
읽기도 힘든 경전을 듣고 아예 통째로 외워버렸다니 대단하세요.
기사를 보니 신태용 감독도 13년 만에 결국 박사 학위를 땀대요.
투지가 어머니를 꼭 닮았어요.

신태용 U-20 대표팀 감독, '신 박사' 됐다...경기대 박사 학위 취득

신태용 U-20 청소년축구대표팀 감독이 '신 박사'가 됐다. 신 감독은 1992년 영남대를 졸업한 뒤 현역으로 활동하던 2000년에 용인대에서 석사학위를 땀다.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2005년 경기대 체육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2017년 13년 만에 논문이 통과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박사과정 입학 후에 13년 걸린 게 경기대 대학원 최장 기록이라고 했다. 이전에는 7년이 최장기간이었다”고 웃었다. 신 감독은 “현장에 있으면서 경험을 많이 했지만 항상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중략) 그는 일찌감치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학위를 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신 감독



경기대 대학원 논문

은 현역에서 은퇴한 뒤 곧바로 호주 퀸즐랜드 로어 코치로 활동했고 2008년 12월에는 친정팀 성남의 지휘봉을 잡고 4년간 K리그 사령탑으로 활동했다. (중략) 신 감독은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것에 만족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기왕에 시작한 것인데 마무리를 지으라는 권유가 많

았다”면서 “그동안 논문을 쓸 시간이 도저히 안 나왔다. 준비를 계속 해오다가 리우올림픽이 끝나고 시간이 되서 마무리를 했다. 논문을 쓰면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방식에 대해 나를 돌아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략)

2017.02.10. [스포츠 조선] 기사 발췌

요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비는 건 따로 없어요. 그저 맨날 가정 편안하고 건강하라고. 가정이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만사가 편안해요. 그게 돈 버는 거고.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염불하니까 금강사 스님이 물어요.

“보살님은 뭐를 소원하십니까?”

“제 소원은 딱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 편안하고 다 건강한 거. 건강 밖에 안 바랍니다.”

건강하면 소원도 이룰 수 있는 거라. 더 바랄 건 없잖아요.

신감독님이 성공한 건 다 이유가 있었네요.

안 그래도 태용이가 다 엄마 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돈, 신감독 장모가 나더러 대단하다고 장한 어머니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사위가 제일 좋대요...하하

명예의 전당 헌액된 '3세대 레전드' 신태용 감독

(상략) 2일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K리그 명예의 전당' 초대 헌액자 여섯명에 대한 헌액식을 진행했다. 선수 부문에는 최순호 수원FC 단장(61)과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54),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53), 이동국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44)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각 10년의 세대별 대표주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성남의 레전드’ 라 불리는 신태용은 3세대의 얼굴이었다. 1992년 일화 천마에서 데뷔해 신인상을 수상한 그는 리그 3연패를 두 차례나 일

귀냈다. 또 MVP도 2회나 차지했다. 401경기 99골-68도움의 신태용이 가진 베스트11 최다 수상(9회)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대기록이다. 그의 합산 투표점수는 21.881점이었고, 고인이 된 유상철(16.404점)이 2위를 기록했다.

신 감독은 현재 K리그에서 활약 중인 아들 신재원(성남), 신재혁(안산) 형제의 추천사에 이어 시상대에 올랐다. (중략) 아들의 축하를 받으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신 감독은 "K리그가 40주년 됐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시고, 명예의 전당이

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운동 선수들은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지만 영덕에 계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모시지 못했다.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축하해줬다. 다들 아시는데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를 맡고 있지만, K리그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K리그를 소개하고 있다. (중략) 나는 국가대표 보다 K리그에서 이름을 날렸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 앞으로 K리그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략)

2023.05.02. [스포츠조선] 기사 발췌



새 집 전경

이 집은 신태용 감독이 지어준 건가요?

맞아요. 신태용 감독이 나한테 물어요. “엄마, 주택이 좋아? 꽃 심고 나무 심는 게 좋아?”

주택이 좋다고 했더니 20년 전에 이 집을 지어서 들어오게 됐어요. 70살 때예요. 자식들 따라 대구 경산에 나가 있다가 원래 살던 괴시3리에 집이 있으면 거기로 들어오고 싶었어요. 근데 마땅한 집도 없고 터가 없어서 괴시1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 나이 올해 여든아홉이니까 19년째 되네요.

이 집 짓고 한 2년은 혼자 있었어요. 신태용도 호주 가 있고 전화도 못하고 허전한 게 딱 우울증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으면서 도둑도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딸이 내려 오겠다고 해서 같이 산 지가 17년 되네요.

딸네 식구가 다섯이에요. 아들 형제, 딸 하나 삼남매인데 다 취직해서 나가고 맨 밑에 손녀는 대학교 2학년이에요. 방학 동안 여기 있다가 며칠 전에 갔고 사위는 직장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요.

내 혼자 있을 때보다 아이들이 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불이 환하게 켜있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자식들도 다 잘되고 편안하시면 먼저 간 남편 생각도 나시겠어요?

생각나지요. 어떨 적에는 태용이가 상 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막 기쁘고 들뜨고 하다가도 한편으론 짜안하고 안 좋아요. 좀 더 같이 계셨으면 이런 영광도 같이 누리고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안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양쪽 다리 관절 모두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신태용 덕분에 수술을 잘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관절 갈고 나면 다리를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는데 나는 불편한 거 없이 지내요. 아들 덕을 많이 봤어요. 하하

나는 아직 귀도 잘 들리고 허리도 안 굽었어요. 생생해요. 그래서 내 속으론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뼈대를 좋게 낳아줘서’ 나이 90이 되도록 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젊을 때는 고생도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해요.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 다 열어놓고 애들하고 밥 먹고 오후에 걸어서 마을회관에 나가서 서너 시간씩 놀다가 와요. 집도 식구들도 신경 쓸 거 하나 없습니다.





신감독 아내(머느리)와 함께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이 걱정이 없을 수 없을 텐데 참 편안해 보이세요. 비결이 있으세요?

나는 우울해하는 사람 보기 싫어요. 뭐라도 꼬인 일이 있으면 얼른 풀어버리고 화가 나도 오래 안가요. 우울하지 말고 활발하게 살아요. 내가 행복해야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야.

지금은 살이 빠져서 쪼그라졌지만 살이 찘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줌마 같은 사람도 걱정하고 사십니까?” 그냥 걱정 없이 후덕해 보인대요. 웬지 부자로 살 것 같고 행복해 보인다고.

사실 그 시절이 정말 다 죽게 힘든 때도 있었는데 사람들 눈엔 태평하게 보이나 봐요. 그러면 나도 그냥 속없이 “맞아요. 맞아요” 해요. 그리고 나면 내 괴로움의 무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뭐든 잘 되겠지, 끝은 있겠지... 하는 마음도 생겨요.

“내 마음에 안 차고 속 끓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다 내려놓으니 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다하는 일이에요. 마음먹고, 마음 쓰기 나름이에요.

☞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체망에 다 걸려낸 할머니, 맑게 빛나는 얼굴로 관세음보살 염화 미소를 짓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닮은 미소



김위순

1935년 올해생, 89세



“보살님은 뭐를 소원하십니까?”
“제 소원은 탄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 편안하고 다 건강한 거. 건강 밖에 안 바랍니다.”
건강하면 소원도 이룰 수 있는 거라. 더 바랄 건 없잖아요.



“우울하지 말고 활발하게 살아요.
내가 행복해야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
야. 젊을 때는 고생도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이 편
안해요.”

당찬 똑똑이 할매의 꿈

박차노미 (1935년 을해생, 89세)



“내가 이 집 와 가지고 희생 안했다 소리 못해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저들만 잘 살면 돼요.
바라는 건 그 하나 밖에 없어요.”





수백년 나이 먹은 고택의 기와지붕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괴시마을의 고샅길을 따라가면 소박한 담장 너머, 깨끗하게 잘 다린 모시 적삼처럼 단정한 한옥 한 채가 나타납니다.

작은 마루를 가운데 두고 부엌과 방 두 칸.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가장 조출하고 소박하게 지어 올린 집.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세상사에 돌아앉은 청렴한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반가입니다.

마당에 가꾼 텃밭, 수돗가 장독대 하나도 묵은 먼지 없이 정갈하고 단정합니다. 세간살이 하나에도 게으름 한 톨 허락하지 않고 살아온 집주인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흰칠한 몸매에 깔끔하게 백발 빗어넘기고 나오신 할머니. 커피라도 타주겠다며 돌아서는 할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가 엿본 부엌도 어제 수리한 듯 청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각 공간마다 출입문은 작고 문턱은 높아 드나들기가 불편합니다. 할머니의 마음 문턱도 이렇게 높지 않아야 할텐데... 불청객은 바짝 긴장합니다. 고운 잔에 커피를 담아 소반 채로 안방에 넣어두고 할머니는 꿈자리 애길 하십니다.

“지대가 세서 그런지 내 마음이 약해 그런지 꿈자리가 어지러워 죽겠어요. 죽은 사람이 꿈에 뵈고 그래서 지난번 마을에 지신밟기 하러 온다고 하길래 ‘아이고 나도 좀 해주면 안되나’ 했어요. 시끌시끌하게 지신밟기를 하고 나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요상한 꿈도 안꾸고, 잠도 수시로 쏸매씩 자고. 어떤 날은 꼬박 새는 날도 많았거든요. 내가 올 아들한테 이 집 지신 밟았다 카니까 ‘아이고 어매 잘했습니다. 어매가 좋아하면 다 좋다’ 카더라고요.”

“속이 안좋아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엄마 굶어 죽을까 봐 곰도 사보내고 고기 같은 거 잡줘야 됩시다 쿠고 그래요.. 어매가 건강해야 저들이 편하대요. 그래 너 말은 맞다. 맞는데...(말끝이 흐려집니다.) 내가 올참다. 웬간히 올참다...”

먹는 일도 흥미를 잃고 집 밖 출입도 끊고 잠도 토옹 못 자는데 꿈 자리 마저 뒤숭숭하다는 할머니. 강직한 얼굴에 수심의 그림자가 켜켜로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수심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할머니는 그 사연을 들려주실까...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콩밭에서 웃는 할머니

우리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박차노미.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어 이름을 우리말로 그대로 바꿔서 차노미, 석자가 됐어요. 무안 박씨이고 친정은 원구1리예요.¹

학업은 어디까지 하셨어요?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됐거든. 뭐 일본말은 배우다 말아 가지고 잘 몰라요. 영해초등학교 댕겼어요. 원구에서 10리 길을 걸어 다니고 그랬어.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때 원구에 분교가 생겨 가지고 그 분교에서 졸업했지요. 요즘은 아들이 없어서 분교도 없어졌지요.

¹ 영해면 원구리는 조선중기 16세기 초엽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인 무안 박씨, 영양 남씨, 대흥 백씨 등 세 성씨가 차례로 입촌해서 약 500년 간 공존하며 살아가는 집성촌이다

내가 총기 좋다 소리 듣고 똑똑하다 소리는 들었어요. 요즘도 읍에 사는 우리 조카가 그래요.
“고모는 중학교만 했으면 뭐라도 하지, 그냥 놀지는 않았을 거다” 해요.

그때 우리 백남(오빠)이가 군에 갔다 와가지고 늦게 중학교에 들어갔거든. 원래 우리 부친이 오래비 졸업하면 내 중학교 보내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백남(오빠)이가 군에 갔다 와서 늦게 중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때가 마침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였잖아요. 그 옛날에 둘이나 중학교 보낼 수 있나요. 결국에 오빠한테 밀려서 나는 중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내가 손해 봤어. 중학교까지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나는 4남매 중 막내예요. 막내라고 이름 받고 컸죠. 오빠 하나 있고 위에 언니 두 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형제 중에 나만 남아있어요.

혼인은 언제 하셨어요?

내가 22살에 결혼했거든요. 이 집으로 시집와서 67년째 살아요. 육촌 시누이가 원구에 시집왔거든요. 우리 집안에 시집왔는데 그 어른이 중신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가라 하면 갔지 나는 참 죽어도 싫은데 어른들이 가라고 하니까 도리 없이 시집온 거지요. 그때도 22살이면 나이 많다고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 다 시집가고 내가 늦게 온 편이에요.

“
박차노미,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어 이름을 우리말로 그대로
바꿔서
차노미, 석자가 됐어요.”

원구는 무안 박씨도 모여 살지만 영양 남씨, 대흥 백씨 집성촌이기도 해서 친구도 많았어요. 우리 종반(부계 형제)이 9종반이거든요. 우리 친정아버지 형제가 9명이에요. 그 형제분들이 모두 한 동네에 모여 살았어요. 친척도 많았죠. 이제는 다들 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때는 우리 집도 잘 살았어요. 평평 울리고 살았지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영해에, 옛날에는 신안공사라고 요새 말로는 수리 조합인가, 거기 땡겼거든요. 집 모양새도 여기보다 나왔지요.

친정은 잘 살았는데 시집을 잘못 와 가지고...하하 일락 꼴도 없는 집에 시집 왔어요.

아이고 고생도 참 말도 못 해요. 친정은 땅도 많고 그랬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우리 백남(오빠)이 집을 다시 지어서 살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결혼할 때 남편은 뭐하던 분이셨어요?

남편이 군에 있었어요. 직업 군인이래요. 중위 때 결혼했어요. 나하고는 7살 차이 나요. 살아계셨으면 지금 96살이겠네요.

결혼 날짜를 받아냈는데 남편 될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 있니까 인편도 못보내고 전화도 없고 해서 연락이 안 됐나봐요. 시댁에서 언제 혼례식이다 편지를 보냈다는데 늦게 부쳤대나 뭐래나... 제 날짜에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신랑 없이 혼례 치를 뻔 했지 뭐예요. 하하. 결국 결혼식 날짜를 미뤘어요. 지는 그런 웃지 못할 사정이 있었나더. 그쪽에선 소식을 못들었다 이거죠. 참 답답한 세월이었어요.

처음 잡은 혼례식 날은 동짓달인데 두 번째 잡은 날은 12월 스무날이었어요. 엄청 추울 때였지요. 그래도 그땐 제대로 오긴 했어요. 하하 그래 시집을 때부터 맘고생을 시작해서 평생 고생하고 살았어요.

나는 결혼사진도 없어요. 우리는 신랑이 중위라고 해서 사진사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구에서 급하게 사진사를 어떻게 불러요. 너무 멀잖아요. 우리는 결혼사진도, 아무것도 없어요. 혼례하고 3일 만에 신행 왔어요.





“
그때는
방이
두 칸 밖에 없어서
삼 고부가
한 방에서 잤지요.”

그래서 시집을 이 집으로 오셨는데 처음 신행 와서 보니 집이 어때요?

당시에도 이 집은 200년 넘은 흙집이었어요. 방 두 칸에. 그래서 후에 지금 이 방하고 부엌은 우리가 입식으로 만들고 저 아랫방은 원래 헛간이었는데 방으로 꾸몄어요. 그래가 지금까지 살아요.

우리 남편이 백부한테 양자 왔어요. 남편의 백부가 따님 한 분 있는데 만주 갔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시집 오니 께 이 작은 집에 양가 시어머니하고 생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양가 생가 세 분 시어른을 지가 다 모셨어요. 그때는 방이 두 칸 밖에 없어서 삼 고부가 한방에서 잤지요.

우리 바깥양반 형제로는 시누 두 분 계신데 다 출가하셨고 고등학교 들어간 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내 시집오던 해에 시동생이 영해농고에 입학했어요. 고등학교 마치고 부산해양대 4년제 다녔어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 시동생하고 네 사람을 대학을 시켰니더.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

결혼할 땐 중위라서 살림을 내준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가 안어른이 지(남편) 보내고는 내가 죽지 못 산다 카는데 어느 아들이 엄마 죽도록 내버려 두고 분가를 하겠어요. 이 집 양반(남편)이 진짜 참 효자여서 부모님 하자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내가 말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당시 군인 월급으로 시동생 공부까지 다 시킬 수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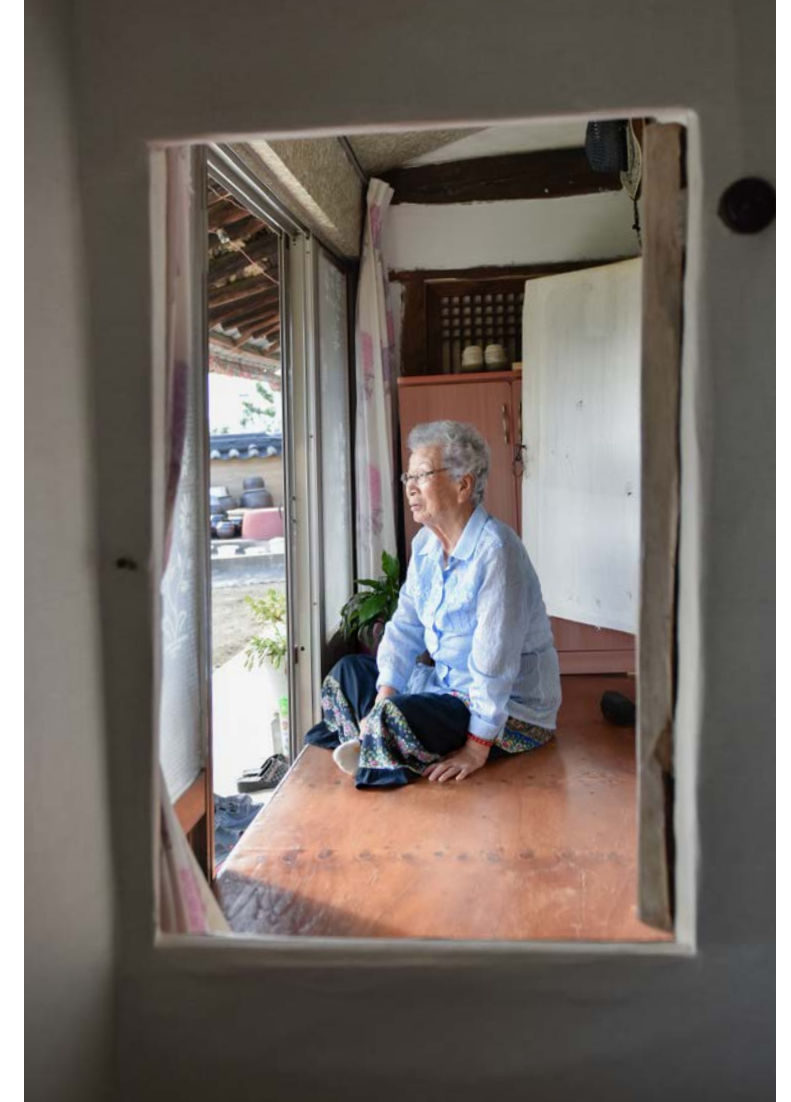
우리 시동생이 영덕농고, 내 시집오던 해에 입학해가지고 3년, 부산 해양대학교 4년 땡겼지. 7년을 공부시켰잖아요. 그때는 중위라도 월급이 만 몇 천원 밖에 안됐어요.

시동생은 해양대 기관사와 가서 6개월에 6만 원씩 두 번, 1년에 12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것 대기도 힘들었어요. 우리 바깥양반 뻔한 박봉에 등록금 대려니 고생 많이 했죠. 시댁은 농사짓는데 돈 한 푼 안 나오잖아요. 동생 학교 시키느라고 우리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 막내 시동생은 해양대 졸업하고 기관사로 바로 취직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부산에 동서만 살아요.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말이는 아들이에요. 60년생 이니 올해 64살 되었네요. 둘째는 62년생 딸이고요. 셋째는 65년생 아들. 막내는 68년생 아들이에요. 내가 55년에 결혼해가지고 5년 있다가 60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우리 바깥 양반이 손 없는 집에 양자로 왔으니 오죽하겠어요. 시집 와서 5년 동안 애가 늦다고 한참을 바랬어요.

어렵사리 말이가 태어났는데 생가 어른 생신날 나왔어요. 2월 22일. 가는 음력 양력 생일이 같아요. 그래도 첫 아들을 낳아놓으니 턱 안심을 했지요. 뒤로 셋을 더 낳았지요.



첫 아들 낳은 다음엔 대우가 달라졌겠네요?

그런 것도 없어요. 뭐 달라지질 게 있어야 달라지지. 워낙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라... 산모가 애를 낳아도 먹을 게 없었다면 말 다했죠.

친정에선 부자로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쌀을 되로 받아먹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예 사나 싶은 거라. 사 먹는 게 한 말도 아니에요. 한 뿔박씩 사서 먹고 사니 기가 막히잖니께. 내 속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니가 결혼 해가지고 만약에 사니 못사니 이런 일이 있다카면 내 집 구경은 다했다.” 미리 못박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성 받아 태어나 가지고 왜 부모를 욕 뻘이나...’ 이런 생각만 하고 그때 무조건 복종했지요. 그래가 몇십 년 동안 시부모한테 희생하고 살았어요.



친정부모님 돌아가실 땐 지켜드렸나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62살에 환갑, 진갑 하던 해 돌아가시고, 친정엄마는 70 몇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내가 시집 사느라고 친정아버지가 편찮다는 소식 듣고도 받들지도 못하고 시집에 매달려 있었어요. 시집오면 다 남이에요.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사촌이 데리러 왔었거든요. 그땐 전화도 없었으니까 직접 왔어요. 아침 할 때 데리러 와서 바로 친정에 갔는데 그날 돌아가셨니더. 임종은 봤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내가 부산 생가에 사랑어른(시부) 제사한다고 가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부랴부랴 뒤늦게서야 가봤죠.

남편분이 직업 군인이면 근무지에 같이 가서 살지 않나요?

처음엔 남편 군대 가고 없는 채로 생가, 양가 시어른 모시고 살았어요. 남편은 대위 진급하고 18년 동안 군 생활을 더 했어요. 소령 진급하면 제대한다고 했는데 그때 5.16에다 10.26에다

사건이 많아서 진급이 될려다 안되고 안되고 그랬어요. 저 화천 사방거리에 근무했거든요.

나는 첫아들 낳고 돌 지나서 61년에 살림을 나왔어요. 남편 근무하는 화천에 가서 한 6년 살았어요. 거기서 딸 낳고 셋째 아들도 낳았어요. 그러다 우리 생가 어른 회갑이라고 다시 돌아왔지요. 그때 남편은 전라도 광주에 있었고요.

남편은 제대하고 싶어 했는데 군 생활을 하도 충실히 하니까 제대를 안 시켜줘요. 제대 신청을 몇 번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아프다고 마산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다가 겨우 제대했어요. 막내는 시댁에 돌아와서 낳았고요.

이 집에서 양가 사랑어른(시부)은 내가 받들고 살면서 병 수발하고 마지막까지 모셨어요. 우리 막내가 5살 땠가 4살 땠가 우리 양가 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손자들은 다 보셨지요. 생가 어른은 부산 동서가 살림하면서 그쪽으로 가셨어요. 70대, 80대에 다 돌아가셨어요.



군 전역한 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몇 해 놀다가 사법서사에 다녔어요. 대서소. 대서방이라고 하지요.한문 잘 하고 한자도 잘 쓰셨지요. 뭐 집안 어른들이 또 전부 선비잖아요. 영양 남씨...

같이 살아도 선비라고 집안에 못도 하나 칠 줄 모르고 집 안팎일은 모두 내가 했어요.

남편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남 자 태 자 결 자 남태결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9년도예요. 편찮아서 종합병원에 6년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엔 병원에 안간다고 얼마나 고집을 피웠나 몰라요.

옛날에 내가 막 시집왔을 때도 십이지장 궤양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3년을 죽 쥘대고 우리 막내가 학교 갔다 오면 앞장세우고 좋다는 조약은 다 구하러 다녔어요. 그중에 무슨 덕을 봤는지 그 병을 고쳐서 살았는데 늘그막에 아파 가지고 고생하셨지요.

대서소를 한 70대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조금씩 조금씩 병세가 나타났어요. 폐가 안좋아 숨도 차고 식사도 제때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앉았다 쓰러지면 119 불러 병원으로 실어가고 실어가고 그랬죠.

입원했다가 한 달 있다 퇴원하고 한 보름 있다 퇴원하고 한 두 달 있다 퇴원하고... 입원 퇴원을 수도 없이 했어요. 결국에 82살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희생 안했다 소리 못해요.

자식 사 형제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집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저 자식들 눈을 안 띄워주면 어떻게 사나 싶어서 내가 발악을 하고 학교 시키려고 했어요. 우리 바깥양반은 막내 동생을 대학까지 시켜놓으니 아무것도 없지. 내 새끼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대학 못 시킨다고 그래요.

왜 삼촌은 대학 보내고 내 자식은 대학을 못 시키느냐고... 그 때 내외가 막 다했어요.

우리는 싸울 일이 없었는데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영감한테 막 달려들었어요.

“왜 내 아는 못 시키노. 나는 우예 되던지 공부시킨다. 내 고쟁이를 팔아서라도 내 자식들 공부 시킨다!”
그래 발악을 하고 세 아들을 모두 대학 보냈어요.

말이하고 그 밑에 아들은 둘 다 경북대 나왔고 막내아들은 계명대, 계대 신문방송학과 나왔어요. 대구에 유학을 보낸 것도 아니고 모두 여기 영해중고 나와서 과외 한번 안 받고 대학가는 쉽지 않아요. 그니까 뭐 아들들 재주 없다는 소리는 못하지요.

집이 있어 세 받을 게 있나, 팔 땅이 있나,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모두 빚냈어요. 갚느라 아주 죽을 뻔 했어요. 내가 하도 절약해 절약해 하니께네. 우리 애들도 알아서 저들이 아끼고 아르바이트 하고 살았어요. 대구에 방 쪼매난 거 한 칸 얻어 가지고 보파리에 살림 이고지고 가서 해주고 오고... 참 이를 악물고 다녔니다.



남 백 순



남 선 순



남 순 박

세 아들 영해고 졸업사진

차남 결혼식에서



남편 대서소 월급 외에 뭘해서 학비며 생활비를 다 대셨어요?

그 때 대서소 다닌다고 해도 월급 몇십만 원 가지고 먹고 살고 아들 학교까지 시키려니 힘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일해 가지고 보태고 살았어요. 남들같이 들 일은 안해도 집안에서 바느질하고 뜨개질하고 유과도 해서 팔고 돈 될 거는 다 했어요.

유과도 친정 엄마가 집에서 그런 걸 했거든요. 그 때는 유과 집(가게)도 안 차리고 누가 부탁하면 해주고 그랬어요. 이래 가지고 유과도 주문 받아서 만들어주고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도 해줘요. 읍에 나가서 세타(스웨터) 뜨개질한 거 얼마씩 팔고... 그러고 살았니더. 그래 갖고 대출 빚 갚고 살았어요. 워낙 막대기 하나 꽃을 땅도 없는 집이라...

집안에 돌아가신 어른들이 맨날 그랬어요. 나더러 대단하다고...

“그 살림살이에 그래 제사도 잘 받들고 아들 학교를 우에 다 시켰노?” 하면 내가 그랬어요.

“아지매요 우리 아아들이 눈을 안 띄워줘서 내 꼴로 사는 거 나는 못 봅니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말약을 했니더”



평소에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클 때는 똑똑하다 소리 들었는데 여기 와서 등신(바보)가 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하
내가 괴시마을로 시집와 가지고 이제 76년도에 부녀회장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68년에 우리 막내를 내 나이 34살에 낳고 아아들 학교 땡길 땐데 76년도에 새마을 사업 시작됐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땐데. 마을 길도 넓히고 초가 지붕도 개량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새마을 지도자를 맡아서 한 6년 일했어요.



새마을지도자증

81년도에 그만뒀는데 그 뒤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한 3년을 더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공로상도 받았어요.

그때는 절미 모으거나 불우이웃돕기를 해도 요새처럼 돈으로 척척 내는 게 아니라 부녀회장이 발로 뛰어가지고 쌀을 걷어야 해요. 정말 온 마을을 설새없이 뛰어다니며 일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하하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박차노미 할머니의 집

이 집은 시집와서 수리하셨다고요?

시집와서 67년을 살았는데 이 집이 옛날 흙벽 집이라 어느 날 보니 뒤로 쏠려서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이력하고 있다가 집 쓰러지겠다 싶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방이었어요. (수리한 바닥과 벽면을 보여주십니다) 기둥이 여기 있잖아요. 이랬는데 이만치를 뒤로 물렸어요. 부엌하고 이만큼이 넓어진 거지요.

근데 남편은 돈 없어 못 고친다, 건드리면 집 무너진다고 손도 대지 말래요. 얼르고 달래도 꿈쩍을 안해요. 참 고지식해요. 이 양반이. 여자 말은 절대 안 들어요.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목수하고 나하고 짜고 수리를 시작해버렸어요. 그래가 결국 이 집을 손 봐가지고 좀 넓히기도 하고 바로 세워놨어요.

다 마친 후에 보고 뭐라고 안하세요?

시작해 봤는데 뭐라카겠어요. 암만 하자 하자 해도 말을 안들으니깐 허락도 안 받고 교촌에 아는 목수를 불러 일 저지른 거잖아요. 사고 치고 나니까 도리 없지 뭐.

다 끝난 거 보고도 좋다는 소리 절대 안해요. 암만 잘해놔도 절대 안하지. 그래 당신 고생했다 그 한마디 하는 법이 없어요. 부모한테 효자고 동기간에 우애 깊고... 그거 빼고 우리 영감님 판 건 볼 거 없어요. 하하.



남편 사진 / 장남 가족사진



젊은꼴 부자



돌아가신 남편 방

성격도 진짜 대쪽 같아서 한번 아니면 곧 죽어도 아닌 거예요. 타협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맏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겁냈어요. 근데 지가 나이 드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된 대요.

엄하게 하거나 아이들한테 손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아니다 하면 끝! 우리 아들이 거기 이의를 안 달았어요. 근데 저그가 대학생이 되고 머리가 커지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꾸 부딪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하고 그건 안된다 하면 끝이니깐. 둘이 싸우면 내가 그러지요.

“야야 너무 그러지 마라. 아버지한테는 암만 얘기해도 안 먹힌다.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인정하자” 결국 저그가 순종해요. 애들이 바탕이 순하고 착해요.

큰아들이 요즘도 집에 오면, 옆에 아버지 방이 있거든요. 거기 인사부터 해요. “아버지, 백순이 왔니더” 카고 어쩔 때는 방 들여다보고 “태결씨, 아들 왔다” 그래요. 농담도 잘합니다.

장남은 남백순, 차남은 남선순, 막내는 남순박... 순박하다 할 때 순박이에요. 모두 순(順)자가 들어가는데 아가 강보에 싸여 노는 게 순하고 착하다고 그래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애들 대학을 보내고 희생을 했더니 이제는 저그가 나한테 희생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고 너그들 대학 시킨 것까지다.” 그러면 우리 둘째가 그러합니다.

“엄마가 우리들 때문에 희생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엄마한테 갚음을 해야지요.” 삼형제가 매달 용돈 보내옵니더.

“엄마 잡숫고 싶은 거 잡숫고 옛날같이 바둥거리면서 살면 안됩니다. 쓰고 싶은 데 쓰소”

“아이고 야야 내 돈 아까워서 못 쓴다”

“아깝기는 뭐가 아까워요. 천 원이라도 쓰소”

내가 살던 걸 생각하니 쓸려고 해도 발발 떨려서 못써요.

“내 쓰고 남으면 너그들 가져가라”

하면 쓸데 없는 소리한다고 난리가 나요. 하하

내가 명절에 다들 모여서 놀 때 농 삼아 그래요.

“내 어릴 때 막내로 둥개둥개 귀하게 커가지고 이 집에 와서 신세 조졌다.”

그러면 저그들도 우스워 죽어요. 우리끼리는 농담 잘합니다.

맏집(맏이) 손녀가 뭐라카는 줄 알아요?

“할머니는 시집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하면

“그냥 가뿌지, 뭐할라고 살았노”

해요. 요새처럼 살기 싫으면 찢어지면 되는 줄 알고...

식구들이 모두 하하 웃어요.

아들 삼형제가 다 효자시더... 집에 올 때마다 고기 끊어오고 아침마다 전화오니더. 맏이하고 둘째는 아침에 전화하고 막내는 퇴근할 때 꼭 전화해요. 삼형제가 전화 빠뜨릴 때가 없니더.

맏이는 경기도 용인 살고 둘째는 경기도 광주 살고 막내는 대구 살아요. 저들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살아요.



제사도 많을 텐데 아직도 직접 지내십니까?

제사는 시조부 두 분, 양가 어른 두 분, 바깥 양반 이렇게 다섯 분을 모셨는데 내가 여기서 지내면 저그가 경기도에 있고 하니까 제사 참석을 못하잖아요. 혼자 지낼 때는 대구 막내가 와서 같이 지내고 가고 그랬거든요.

만이가 “엄마 이래 갖고 안됩니다. 제가 받들게요” 하는 걸 “그래도 내가 건강할 동안은 내가 하꾸마. 너한테 맡겨가지고는 내가 말이 아니다.” 했었어요.

이제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만이가 다시 제사를 뒤희가겠다고 해요. 그래 그럼 뒤희 갈라하면 니한테는 증조부고 니 아들한테는 고조부인데 이제는 조매²해도 된다. 조매하고 나머지 분들만 뒤희고 가라. 이러니까 “엄마 살아계신 동안은 조매를 못한다” 카는 기라.

그렇게 저그가 한 두 해 제사를 모셨는데 내가 안되겠다 싶어서 자꾸 우겼어요.

“야야 에미 직장 땡기고 그 왔다 갔다 하니 힘드는데 제사 못 지낸다. 누가 탄 사람 올 사

람 없고 우리 식구만 지내는 거니까 그냥 조매하자.” 내가 우겨가지고 이제 조매하고 세 분만 받들고 있어요. 양가 두 분하고 저그 아버지하고.

우리 딸며느리가 경기도 사람이라 처음 (시집)오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내가 ‘저래 모르는데 제사를 우예 맡기노.’ 그랬더니 요새는 제사 잘 지내요. 이제 우리 둘째가 제사 때 가깝게 있으니까 같이 지내고 있는데 개가 그래요. “엄마 이제 걱정마세요. 형수가 잘합니다.”

멀어서 기제에 참석은 못하시지요?

그렇게 제사 뒤희간지가 5, 6년 됐어요. 전에는 채소 같은 거 나물하라고 손질해서 택배로 보내고 했는데 요새는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요. 제물은 생선만 내가 미리 사서 손질해 뒤희다가 보내요. 우리 아들도 제사 고기는 거기서 사면 맛있다고 영해에서 사주세요. 하고 부탁해요. “오냐 내가 하는 데까지 해주꾸마” 그래가 어물은 내가 늘 사서 보내줍니다.

이제 설 되면 말이는 떡하고 막내는 과일 책임지고 둘째는 돈 대고 다 분배가 돼 있어요.

제사 옮겨가고 내가 몇 번은 땡겼어요. 저그가 나를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이전에 아아들 객지에 내놓고 있을 적에는 서울까지 용인까지 혼자 다 다녔는데 이제는 못 다녀요. 기제에 못 가본 지 한 이태(2년) 정도 됐네요. 이젠 아들이 그래요. “엄마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삽시다.”

“아, 나는 너그 집에 가서 식구 넷이 다 직장 가면 아파트에서 혼자 뭐하노. 나갈 데가 있나.”

“엄마는 문 열 줄 알고 하니까 노인정 가시면 되지”

“아, 싫다. 나는 도시 노인정엔 안 간다, 내가 여기 와서 마당에 다니던지, 마을회관에 땡기지 너그 집으로는 안들어간다.”

아들은 도시에서 같이 살자 하고 나는 못간다 하고 맨날 실랑이를 해요.

2 挑埋-산에 신주를 묻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밑에 애들은 몰라도 만이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 맨날 걱정했지요.

“이제 너그 그래 잘 사니 내가 걱정 잊어도 되겠다.” 하니
“그래 엄마 이제는 걱정하지 마소. 우리 먹고 살 거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케요.

앞으로 저그가 잘 살아야지. 바라는 건 그 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그들 이만할 때 내가 고만 갔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막내는 “무슨 말씀, 엄마 100살까지 살아야지”

“100살까지 살다가 누구 민폐가 될라꼬”

하고는 나도 헐헐 웃어요.



☞ 할머니의 잠 못 드는 밤,
수심 깊은 사연은
이 지면에 담지 않기로 합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슬픔은 슬픔인 채로 덮고
묵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최 많은 자가 할 수 있는
애도이고 치유의 방식입니다.
누구나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명랑하고 카랑카랑하고
총기 밝으신 할머니,
몸과 마음 더 상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건너 오시길...
언젠가 옛 말하며
선선히 웃을 그날이 어서 오길
기다릴 뿐입니다.

당찬 똑똑이 할매의 꿈



박차노미

1935년 을해생, 89세



“내가 이 집 와 가지고 희생 안했다 소리 못해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저들만 잘 살면 돼요.
바라는 건 그 하나 밖에 없어요.”



“그때는 절미 모으거나 불우이웃돕기를 해도 요새처럼 돈으로 척척 내는 게 아니라 부녀회장이 발로 뛰어가지고 쌀을 걷어야 해요. 정말 온 마을을 설 새없이 뛰어다니며 일했어요.”



늦더위가 별 자락에 남아있던 9월.
무례한 객을 방문 활짝 열어 맞아주고, 곁을 내주신
권태갑, 김위순, 박차노미 세 분 어르신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두 번 세 번 묻는 귀찮고 불편한 질문도 내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응해주신
관대함과 짝딱하고 참담한 세월 다 살아내고 그늘 깊은 나무로 서 계신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맑고 투명한 눈빛과 웃음으로
딸처럼 손주처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은 마르고 노쇠해 지지만 삶에서 스며 나오는 품격은 더욱 깊어짐을 배웠습
니다.

사랑합니다. 더욱 강건히 활동하시어 후진의 삶을 지켜봐 주십시오.

.....

그리고
권노미, 권분연, 권영자, 김기선, 김기응, 김복순, 김명자, 김은희, 박수남, 박종분,
신세학, 신위성, 안차숙, 이진기, 이후경, 임순연, 장순연, 장분도, 조영주, 천봉조,
황숙재 등 괴시리 노인회 여러분.
이분녀 총무님, 김인 괴시리 이장님, 남중열 괴시민속마을 보전위원장님
백번 강조해도 부족한 말이지만, 감사합니다.

봄풀이 돋고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시절에
다시 반가운 얼굴로 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_허현정
사 진_이상철,김영철,권주은
편 집_김소연
디자인_강리안
기 획_영덕문화관광재단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 영덕 괴시민속마을 '할매할배이야기'

"지나간 자리는 다 꿈이어라"

본 기록집 사업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2023지역기반 통합프로그램 지원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출간물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및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있으며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사업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99
www.ydct.org
054)730-5884
